
일반논문

이해조 신소설에 나타난 근대 사회 윤리로서의 '신의(信義)'의 형상화 방식에 관하여

이 경 립*

[국문초록]

이해조는 이인직, 최찬식 등과 더불어 신소설의 주요 작가로 익히 거론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이해조의 사상적 지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자료인 『윤리학』 연재물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권선징악이라는 전근대적 윤리관의 서사화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 왔던 이해조 소설 일부를 재조명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된다.

『윤리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윤리학을 '인식'이자 동시에 '실천'으로 이중 규정한 데에 있다. 근대적 학문으로서 윤리학의 근본 목적은 '인륜의 이치'를 인식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데에 있다고 기술되었던 바 있다. 이 '인륜의 이치'에 대한 탐구는 인간의 선악을 구분하는 표준에 대한 인식인 동시에 인간성을 가늠케 하는 척도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다. 이해조 소설의 저류에 있는 문제의식 중 하나는 이 '인륜의 이치'를 형상화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소설을 '윤리학적' 인식의 수

* 홍익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주제어: 이해조, 신소설, 윤리학, 흥도화, 화세계, 화의 혈, 빈상설, 신의, 계약, 사회, 윤리

Lee Haejo, Sinsoseol, Ethics, trust, contract, society, social morality

단으로 제시하려는 시도는 『윤리학』의 번역에 앞서부터 잠복해있던 주제가기도 했다. 그런데 『윤리학』은 주체의 외부에 존재하는 표준에 대한 인식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이 표준이 사회의 진보에 따라 급속하게 변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맞는 표준을 새롭게 창출해낼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윤리학』은 사회의 구성원을 개인으로 규정하고, 개인이 맺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일반을 의무와 권리의 관계로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계약’의 전제 위에서 묘사되는 사회적 관계는 계약 참여 당사자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개인,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의 이미지를 동반한다. 이러한 주체는 신분질서에 근거한 전근대적 도덕질서의 바깥에 존재하므로, 이들은 계약을 통해 발생한 의무와 권리의 질서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해조는 결혼을 계약으로 묘사하고, 결혼을 그것을 포함한 근대적 사회관계 일반에 대한 자유로 사용했다. 예컨대 『홍도화』에 나타난 심상호와 이태희의 결혼은 계약 당사자의 상호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홍도화』에서의 결혼이 『윤리학』에서 묘사되었던 것과 같이 긍정적인 정념을 동반하고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계약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하여, 『화의혈』에 나타난 선초와 이 시찰의 결혼은 이러한 이상을 결여하고 있어, 의무·권리의 공익을 요구하는 법적 관계로서의 계약의 본질적 성격을 노출한다.

그러나 이해조의 문제의식은 계약이라는 새로운 관계 형태에 놓인 두 개인 사이에 적용될 수 있는 윤리의 형상화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해조는 이를 ‘신의’로 형상화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교제에 요구되는 사회도덕으로서 그 요체는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사욕을 좇아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화의 혈』이나 『화세계』에 그려진 여성인물의 행동을 신의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수정과 선초의 서사를 통해 형상화된 것은 사욕을 억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회도덕으로서의 신의이며, 이는 주체를 ‘인간’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표준으로 제시된다.

이처럼 소설 창작에 투사된 이해조의 ‘윤리학적’ 문제의식을 고려할 때, 1910년이라는 단절의 저변에 흐르는 사상적 연결점들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1. 서론: ‘윤리학적’ 인식 수단으로서의 소설

이해조는 『제국신문』, 『매일신보』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소설을 발표했던 근대 초기 작가로서, 이인직, 최찬식 등과 더불어 신소설을 대표하는 주요 작가로 익히 거론되어 왔다. 다만 문학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쓴 작품의 ‘질’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근대의 문물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근대 국가로의 거듭남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계몽에 방점을 찍는 데 주력했던 『자유종』과 같은 초기 작품들이 주목을 받아 온 반면, 효(孝)와 같은 전통적 가치관을 내세우고 『금고기관』과 같은 기존의 서사 레퍼토리를 즐겨 차용했던 후기 작품들에 대해서는 비판적 평가가 내려졌던 것이 사실이다.¹⁾ 이와 같은 인식은 이해조를 “이인직의 다음 가는 신소설 작가 중의 웅(雄)이나 거의 『자유종』이란 정치적 소설 1편을 제외하고는 일관하여 이인직의 초기작인 『치악산』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끝난 사람”으로 단언하고, “전통적 작가”인 그의 스타일을 이인직의 ‘리얼리즘’과 그가 개척한 “현대소설”과 대조했던 임화의 통찰이 가진 영향력을 상기시킨다.²⁾

그런데 최근에 이해조의 사상적 지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인

-
- 1) 1910년대 신소설에서 드러나는 계몽성의 소거와 통속성, 선정성으로의 경사 경향, 고소설적 구조로의 복귀 경향은 주로 식민화의 결과로 이해된다. 현실 비판 정신이 해이해짐으로써 재래의 통속소설 구조에 안주하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한기형(1999),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 74면)나 대한제국 멸망 이후 전반적인 문제의식이 쇠퇴하고 고소설적 구조로 퇴각하였다는 견해(최원식(1986), 『이해조 문학연구』,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114-115면) 등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답론의 식민화뿐만 아니라 매체의 식민화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이영아는 1910년대 『매일신보』에 실린 이해조 소설에서는 ‘풍속개량’이라는 계몽적 주제 의식 대신 ‘복수’를 중심으로 한 선정적인 스토리와 권선징악적 주제 의식이 두드러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던 바 있다(이영아(2007), 『1910년대 『매일신보』 연재소설의 대중성 획득 과정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23, 한국현대문학학회, 50면).
 - 2) 임화(2009), 『개설 신문학사』, 임화·임규찬 편 『문학사 - 임화 문학예술전집 2』, 소명출판, 167면.

「윤리학」 연재물에 대하여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는 전근대적 윤리관의 서사화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 왔던 이해조 소설 일부를 재조명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된다.³⁾ 이해조가 『기호흥학회월보(畿湖興學會月報)』에 연재했던 「윤리학(倫理學)」(1908.12~1909.7.)과 그가 『제국신문』에 연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윤리학(倫理學)」(1908.6.20~10.27.)은 당대 일본의 심리학자로 동경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던 모토라 유지로(元良勇次郎)가 1900년 출판한 『윤리강화(倫理講話)』를 축약하여 편찬한 『중등학교 원량씨윤리서(中等學校元良氏倫理書)』(1902) 상권을 번역하고 내용을 덧붙인 글로 밝혀졌다.⁴⁾

그런데 위의 일련의 글에 있어 가장 흥미로운 점은 윤리학을 ‘인식’이 **자 동시에 ‘실천’으로 이중 규정**한 데에 있다. “윤리학은 인륜의 리치를 궁구하야 그 실행하는 방법을 구하는 학문”⁵⁾이라는 단적인 서술에서 잘

- 3) 권영민은 새로운 윤리규범을 확립하려 시도한 「윤리학」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것은 『자유중』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한일강제병합 이후의 이해조 소설들은 선악을 가족 관계에서 구하는 통속적 가정소설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 권영민(1978), 「이해조의 소설관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4) 송민호(2011), 「이해조의 근대적인 교육관과 초기 소설의 윤리학적 사상화의 배경」, 『한국현대문학연구』 33, 한국현대문학학회, 81면; 배정상은 그간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제국신문』 소재 「윤리학(倫理學)」(1908.6.20~10.27.)을 정리·공개하고, 이 글 역시 『중등학교 원량씨윤리서』를 저본으로 삼은 글임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기호흥학회월보』 소재 「윤리학」은 『제국신문』 소재 「윤리학」의 초반 내용과 일치하며, 『제국신문』 소재 「윤리학」의 후반 내용은 『기호흥학회월보』가 폐간됨에 따라 『기호흥학회월보』에 미처 실리지 못했던 내용으로 추정된다(배정상(2015), 『이해조 문학 연구』, 소명출판, 82-84면). 『제국신문』 「윤리학」의 필자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을 이해조가 집필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본 논문에서는 『기호흥학회월보』 「윤리학」과 『제국신문』 「윤리학」의 저본이 동일하다는 점, 『제국신문』 「윤리학」이 『기호흥학회월보』 「윤리학」에서 갑작스레 중단된 후반부를 온전히 포함하고 있어 『제국신문』 「윤리학」이 이해조 본인의 집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시기 이해조의 사상적 경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텍스트라는 점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 『기호흥학회월보』 「윤리학」이 아니라 『제국신문』 「윤리학」을 주로 참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했다.
- 5) 「윤리학」, 『제국신문』, 1908.6.20.(배정상, 앞의 책, 474면에서 재인용) 강조는 인용

드러나듯, 근대적 학문으로서 윤리학의 근본 목적은 ‘인륜의 이치’를 인식함으로써 이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고 파악된다. 그리고 이 ‘이치’는 동양의 전통적 윤리관과 유사하게 선(善)과 악(惡)의 이분법적 코드를 통해 인식될 수 있다.

「윤리학」은 ‘인륜의 이치’에 대한 탐구를 선악을 구분하는 “한가지 주의(主義)”, 즉 ‘표준’에 대한 인식으로 규정했던 바 있다. 이와 같은 윤리관에서 ‘이치’의 탐구가 주체의 외부에 존재하는 선험적 질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추구라고 할 때, 이러한 세계관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서사가 인물의 주체성보다는 인물을 통해 질서를 현현시키려는 경향을 드러낸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선과 악은 선험적 질서를 인간의 도덕적 경험의 지평에서 이해하기 위해 도입된 코드이며, 이 코드를 통해 조직된 서사들은 시대적·문화적 배경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권선징악’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갈등의 해소 방식을 만들어낸다.⁶⁾ 또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라는 인륜(人倫)의 문자적 의미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 여기서 인륜은 주체에게 선악을 구분케 하는 외부의 표준이자 동시에 인간성을 가늠케 하는 척도로도 규정되고 있다.

이해조 소설을 관류하는 주제 중 하나는 이 인륜을 서사를 통해 형상

자. 이후 『제국신문』 소개 「윤리학」에 대한 인용은 「윤리학」, 배경상의 책에 해당 부분이 실린 면수로 간략하게 표기하고자 한다.

- 6) 예컨대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유행했던 근대 서구의 드라마 형식인 멜로드라마(melodrama)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선악의 도덕적 양극화에서 찾아진다. 일반적으로 멜로드라마에 나타나는 도덕적 이분법은 서구 근대의 도덕적 혼란에 따른 대중의 불안함을 도덕적 확실성으로써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해된다(벤 싱어(2009),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이위정 역, 문학동네, 77면). 본 논의와 연관 지어 상술하자면, 멜로드라마는 선악의 대립으로 조직된 기존의 도덕질서를 **의도적으로** 인식·재현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해조의 소설에 드러나는 선악의 이항 대립 역시 기존 도덕질서에 대한 의도적 추인(追認)이라는 측면에서, 전근대적 윤리관에의 순응이나 고소설적 구조의 추수가 아니라 도덕질서의 붕괴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화함으로써 독자에게 질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소설을 현실의 선악을 분간케 하는 표준으로 제시하려는 이해조의 ‘윤리학적’ 시도는 1910년이라는 역사적 분기점을 전후 하여서, 『제국신문』과 『매일신보』의 거리를 건너서⁷⁾, 또한 『윤리학』의 연재에 앞서부터 잠복해있던 가장 주요한 주제 중 하나였다고 보인다. 익히 알려진 『화의 혈』 서문에서 이해조는 소설을 “스실은 적확하야 눈으로 그사됨을보고 귀로 그스정을 듣는듯하야 선악간 족히 밝은거울이 될만”⁸⁾하다고 규정하고, 그 목적은 “(사실을 인용자 주) 편잡하야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경성”⁹⁾하는 데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그런데 소설을 이치의 ‘거울’로 간주하는 이와 같은 ‘윤리학적’ 소설관은 이미 1907년의 시점에 연재되었던 『빈상설』에서 “이후몇백년이라도 이소설만보면 유덕흔지 천착흔지 유순흔지 요약흔지 정듯흔지 간특흔지 거울갓치 분변”¹⁰⁾할 것이라 기대한 데에서 선취되었던 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이해조 소설을 ‘윤리학적’ 맥락에서 접근하려 할 때, 『윤리학』이 동양의 전통적 윤리관과 분기하는 다음과 같은 지점을 간과할 수 없다.

7) 총독부 기관지로 조선의 제국으로의 ‘동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던 『매일신보』라는 매체 특성을 중심에 두고 볼 때, 이 지면에 연재된 이해조 신소설은 ‘부적절한 모방’으로서 식민주의와의 길항(이희정(2004),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해조 신소설의 근대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22, 한국현대소설학회) 혹은 ‘식민화를 위한 경제의 문학’으로서 식민주의로의 흡수(구장률(2012), 『식민지 문화전략과 복고의 식민성-이해조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49,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라는 양극 사이에서 독해되는 경향을 보인다.

8) 『화의혈』, 『매일신보』, 1911.4.6. 강조는 인용자.

9) 『화의혈』, 『매일신보』, 1911.6.21. 강조는 인용자.

10) 이해조(1911), 『빈상설』, 동양서원, 105면, 강조는 인용자.

이 목덕(수신(修身)과 처세(處世)라는 윤리상의 두 목적-인용자 주)을 달하고자면 반다시 한가지 주의(主義)를 세워 표준을 삼아 헝헝면 이는 곧 도덕상의 이른바 착한 것이오 이것을 억의면 스사름이 되나니 이는 곧 도덕상의 이른바 악한 것이라 그러나 세상사름의 선악을 분별하기를 왕왕 이왕 경험으로 추척하여 소위 격언과 습관 등으로 주의를 삼고 사회가 날로 복잡하여 진보됨이 심히 속허거날 사회에 맞지 안일 것은 분명헌 리치라 그런고로 반다시 여러 가지 료리의 학설을 비교하고 그 리치를 연구하여 오늘날 스상에 맞도록 하는 것이 가장 도흔 주의라 이 주의를 임의 명헌즉 비단 참된 리치를 발명홈에 족홈 썩더러 곳 이로 말미암아 사름의 스상 헝위를 관할호지니¹¹⁾

「윤리학」은 질서에 대한 인식을 강조할 뿐 아니라, 이 질서가 사회의 진보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선악을 가르치는 기존의 표준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상’에 맞는 ‘참된 이치’를 ‘발명’해내는 것, 즉 주체적으로 윤리를 창출해낼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기존의 윤리가 주체에게 선과 악의 항목을 명시하고 그대로 따를 것을 요구했던 것에 비하여, 오늘날에 발명해야 할 ‘참된 이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시 규정되어야 할 선과 악의 내용을 주체적으로 탐구하여 채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대에 적합한 윤리를 ‘발명’해내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은 유교적 윤리관이 근거해있던 중세적 신분질서의 폐지가 선언되었다는 시대적 배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는 「윤리학」이 전근대적 신분 질서로부터 탈각한 근대 ‘사회(社會)’라는 장(場)의 정체와 성격을 규명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가정된 ‘개인’의 윤리를 도출하는 논리 구조에서도 잘 드러나는 바이다.¹²⁾

11) 「윤리학」, 475면, 강조는 인용자.

12) 송민호는 「윤리학」이 개인의 심리학적 표준에 초점을 맞추고 이로부터 사회와 국가의 윤리를 도출했으며, 이를 대한제국 말기의 수신(修身) 과목에서 보이는 국민

‘사회’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번역어로서 19세기 후반에 소개되었고, 이 개념은 다른 번역어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질서와 장(場)을 구상하는 상상력을 촉발시켰다.¹³⁾ 특히 신분질서의 폐기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갑오개혁 이후, 사민평등(四民平等)이라는 새로운 질서에 기반한 근대적 삶의 장으로서 ‘사회’가 적극적으로 상상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¹⁴⁾ 이해조와 더불어 신소설 초창기의 주요 작가인 이인직에게 있어서도 ‘사회’라는 개념이 중요한 사상적 구심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¹⁵⁾, 이해조와 이인직으로 대표되는 초기 신소설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사회’라는 새로운 장과 그 안에서 적합한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소설을 근대 ‘사회’ 속에서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와 상상을 형상화하고 유포했던 미디어로 규정할 수

국가 패러다임과 대비되는 지점이라고 보았다(송민호, 앞의 논문, 122면). 한편으로 같은 텍스트가 국민국가 패러다임 하에서 책임과 윤리의 문제를 다루었다고 보고 식민화에 순응적인 경향을 강조하는 해석도 제출된 바 있다(김복순(2014), 『『제국신문』 학문론의 실학적 변용과 학지(學知)의 타자성』, 『여성문학연구』 31, 한국여성문학학회, 36-37면). 본 논문은 『윤리학』이 ‘국가윤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는 하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윤리’, ‘사상윤리’ 등을 두루 논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내에서 행동하는 개인의 덕성을 규정하는 문제를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윤리학』의 논의에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 회수되지 못하는 지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 13) 근대 초기 ‘사회’의 번역과 그 개념의 내포에 대해서는 김현주(2013), 『사회의 발견: 식민지기 ‘사회’에 대한 이론과 상상, 그리고 실천』, 소명출판을 참고.
- 14) 근대적 ‘사회’는 신소설에서는 ‘사민평등’과 ‘개화’, ‘문명’, ‘법’, ‘교육’, ‘자유결혼’, ‘과학’ 등 주로 근대 제도와 문화를 지향하는 개념들을 경유하여 지각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재선(2000), 『한국소설사 - 근·현대편 1』, 민음사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 15) 이인직은 일본 체제 시절에 습득한 지식을 정리하여 『사회』(『만세보』 창간호, 1906.6.17.), 『사회학』(『소년한반도』, 1906.11.~1907.3.)을 발표했던 바 있다. 이인직이 참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저본에 대해서는 구장률(2006), 『신소설 출현의 역사적 배경: 이인직과 『혈의누』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3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과 다지리 히로유키(2006), 『이인직 연구』, 새미를 참고할 수 있다.

있으며, 이해조의 신소설은 그중에서도 근대 ‘사회’ 속에서 가능한 개인의 윤리를 탐색해 본 ‘윤리학적’ 인식의 수단으로 조명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고려할 때, 이해조의 소설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참된 이치’를 발명해내려 했던 ‘윤리학적’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부상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대에 따라 바뀌는 이치에 대한 탐구와 인식이라는 ‘윤리학적’ 시도가 이해조 소설에서 드러나는 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1900년대 후반과 1910년대 이해조 신소설 사이를 이어볼 수 있는 몇 가지 연결점들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2. 근대 사회 관계의 모델로서의 계약에 투사된 ‘윤리학적’ 이상

답 인류가 칭긴 이상에 다만 한낱 사회 가운데에서 칭활하는 것이 안이라 반다시 다른 사회로 더부러 서로 연락이 되나니 이는 우리 인성의 소상과 형위가 하나도 사회에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업서 즉접(直接) 혹 간접(間接)으로 그 발달을 돕기도 하고 방애도 되나니 사회는 본래 한 심명의 기관이라 그 기관 안에 있는 기인이 일거 일동과 및 일절 스위를 학파(學派)와 학설(學說)의 엇더함으로써 한갓 닷흠은 모다 지엽의 이론이니라

문 료리상으로부터 구별을 난호면 무엇무엇이뇨

답 한가지는 슈신(修身)이오 또 한가지는 처세(處世)이라¹⁶⁾

윤리학이라는 학문의 범주와 뜻을 논하고 있는 위의 대목에서 드러나듯, 「윤리학」은 인간이 반드시 ‘사회’와 관계를 가진 존재이므로 이로부터 ‘기인’의 행동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사회’는 개인이 살

16) 「윤리학」, 475면, 강조는 인용자.

아가는 장이기는 하되 그 자체로 생명과 자율성을 가지는 일종의 유기체로 파악되고, 이 ‘사회’의 변전이 매우 복잡하고 빠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사회’들과 관계하는 개인이 이 속도에 발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 개인이 탐구해야 하는 것은 자기의 덕성을 함양하는 ‘수신(修身)’과 ‘인류사회’의 발달에 헌신하는 ‘처세(處世)’인 바, 이 둘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따라야 하는 ‘리치’, 즉 ‘륜리’에 해당한다.

「윤리학」은 ‘사회’의 구성원이 개인(‘자기’)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그 범위를 각각 ‘신체’, ‘사상’, ‘사회’, ‘천리’와의 관계 속에서 논하려 했다.¹⁷⁾ 이 지점에서 주목할 만한 바는 개인이 이들과 맺는 관계가 ‘의무’와 ‘권리’의 관계로 표상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개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조차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고 기술되는 식이다.¹⁸⁾ 「윤리학」은 전반적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맺는 관계 일반을 의무와 권리의 관계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윤리학」에 묘사된 여러 사회적 관계가 ‘의무’와 ‘권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계약(contract)’이라는 관념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다는 점을 알게 해준다.¹⁹⁾ 그리고 이처럼 ‘계약’의

17) 「륜리학」, 476면.

18) 선량한 정신을 가히 길너 신체의 부족함을 보충홀지니 실로 밋엄이 잇고 두려울 것이 업서 자기 신체에 덕홀 의무가 이로쫓차 싱기니라

문 의무라 호는 것은 무엇이뇨

답 의무는 갑(甲)이을(乙)에 덕홀 의무가 잇스면 을이 갑에 덕호야는 불가불 상당홀 권리가 잇슬지니 이제 자기에 덕호야 의무가 잇다호은 자기 일신 중에도 의무와 권리의 구별이 잇나니 이 말이 비록 괴괴허탄호 듯호나 세밀케 분석호면 실로 망령된 말이 안이니라 - 「륜리학」, 477면.

19) 혼인으로써 결합한 부부가 가정친족과 국가사회에 대하여 지는 의무(「윤리학」 제9장 가족윤리), 사회에 대하여 개인이 져야 할 의무의 내용(「윤리학」 제10장 사회윤리), 국민 상호간에 져야 할 권리와 의무(「윤리학」 제23장 국가윤리) 등 「윤리학」은 거의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를 의무와 권리의 수사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를 의무와 권리 속에서 파악하는 것은 개인을 행동의 주체로 규정하고 인간의 활동을 사회라는 관점을 통해 이해한다는 인식의 근대적 전환에 관계되어 있다.

전제 위에서 묘사되는 사회적 관계는 계약 참여 당사자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개인’, 즉 계약에 동의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가진 주체의 이미지를 동반한다.²⁰⁾ 이와 같은 주체 표상은 태생적·집합적 정체성인 ‘신분’에 근거하여 윤리의 내용을 부여하는 전근대적 도덕질서의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발생하는 의무와 권리의 질서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²¹⁾ 서구에서 중세적 사회 질서로부터 근대적 사회 질서로의 이행을 ‘신분’에서 ‘계약’으로의 이행으로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할 때²²⁾, 이는 이해조가 처해 있던 갑오개혁 이후의 대한제국 사회에 일어난 근본적 변화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국신문』 지면에 『윤리학』과 동시에 연재된 『홍도화』(1908.7.24.~9.17.)가 심상호와 이태희의 결혼을 그리는 방식과, 결혼 모티프가 그것을 포함한 근대적 사회관계 일반에 대한 제유(提喻)로 사용되는 방식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²³⁾

-
- 20) 일본의 경우 *individual*의 번역어로서 ‘개인(個人)’이라는 개념은 “타자(他者)나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이며, 지위나 직업이 무엇이든 거기서 분리되더라도 존립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평등한 존재”라는 내포를 가진다. 그리고 ‘사회’는 이러한 개인들의 집합으로 상정된 *society*의 번역어로 도입되었다(사쿠타 케이이치(2013), 『한 단어 사전, 개인』, 김석근 역, 푸른역사, 10-12면). 『윤리학』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의미망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21) 『윤리학』은 ‘사회’를 “기인의 증합한 자”라고 규정하고, 그 결합은 자연적이나 개인의 이해가 충돌하면 질서가 문란해질뿐더러 이와 같은 자연적 결합이 큰 사회를 제어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권리와 의무의 제한을 통해 강력(強力)으로 결합을 유지하게끔 한다고 기술했다. 즉 이해가 충돌하기 마련인 자유로운 개인의 집합으로서 사회가 자연스럽게 출현하고, 그 결합을 유지하기 위해 요청된 인공적 기관/조직이 국가다. - 『윤리학』, 492-493면.
- 22) 조궁호·강정인(2012), 『사회계약론 연구』, 서강대학교 출판부, 17면.
- 23) 『제국신문』에 『윤리학』이 연재되던 중(1908.6.20.~10.27.) 『홍도화』(1908.7.24.~9.17.)가 연재되었다.

(가) 나라의 인민되기는 늙여 7 일반이라 이십세기(二十世紀) 시
되는 이왕 쇠국시되(鎖國時代)와 갖지안이하야 녀즈가 규중에 갖쳐
오즉 술 밥이나 지을줄알고 지닐것이안이라 각종학문을 넓히 다가
국가사회의 큰스업을 성취하느니 것이당연흔직분이니²⁴⁾

(나) 애초에 너가그부인에게 장 7 를드르더면 나도소원성취가 되
엿스려니와 그 부인도 빅오던공부를 중노에폐지안이하고 고명흔녀
즈사회에 령슈가되엿을겉²⁵⁾

(다) 공익으로말하면 청상과부를 억지로슈절케하야 국가싱산에
큰손희가 되게흔단말인가²⁶⁾

(라) 예전세월에는 장가가고 식집가기를 신랑신부의 의향은엇더
흐던지 일호도 상관치안코 다만 문벌이나 가세나보아 억지로 혼인
을흐얏다가 너의금실이 잇게지닌사람은열에하나 빅에하나이오
항다반부처가반목(夫妻反目)되야 집안에 화기가손상되니 이는당흔
사람 한집으로말하면 심상흔기인의일에 지나지안이흐오나 너집네
집으로 전국사람의집에 모다그갖흔 영향이잇스면 이는 **기인의불행**
이온이라 국가전체에 큰불행흔일이올시다²⁷⁾

『홍도화』는 13세에 부모의 뜻에 따라 혼인했다가 과부가 된 태희의
서사를 통해 조혼과 과부 개가 금지를 타파해야 할 구습(舊習)으로 지적
하고, 상호와 태희의 결혼을 통해 ‘사회에 맞지 않게 된’ 과거를 속아내
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관계의 윤리를 ‘발명’하려 한 ‘윤리
학적’ 시도가 뚜렷하게 드러난 서사라고 볼 수 있다.

24) 이해조(1912), 『홍도화』, 동양서원, 8면.

25) 위의 책, 60면.

26) 위의 책, 43면.

27) 위의 책, 56면.

여기에서 결혼은 몇 가지 요건을 상호보장해야 하는 관계로 제시된다. 혼인은 여성이 ‘나라의 인민’으로서 국가사회에 나아가 활동할 것을 제약해서는 안 되며(가), 남성은 여성의 공부를 중도폐지하지 않고 그가 사회에 나아가 활동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나). 혼인은 국민을 생산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해야 하는 사회적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다), 개인에게 국한된 사적 사안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관계되는 공적 사안으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라). 또한 ‘예전 세월’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신분을 교환하는 혼인은 ‘가정의 화기’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타파해야 할 구습으로 고발된다(리). 다시 말하여 『홍도화』가 제시하는 새로운 혼인의 윤리는 ①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합의와 ② 공익(국가사회)에의 기여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혼의 윤리는 결혼한 남녀 모두 국가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결혼에 있어 애정을 필수 요소로 꼽은 『윤리학』에서의 논리와도 일치하고 있다.²⁸⁾

이와 같이 묘사된 결혼은 신분을 기초로 조직된 전근대적 위계질서의 바깥에 위치한 근대의 ‘개인’이 맺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상징하는 모티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은 신분과 가문이라는 집합적 정체성에 의해 규정되는 객체가 아니라 자유의지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의 주체라는 맥락에서 규정되며, 전근대적 정체성으로부터 탈각한 개인들이 상호간에 맺을 수 있는 관계는 상호이익의 교환이라는 계약의 형태로 먼저 제시된다. 결혼은 태희에게 자신의 구(舊) 가정에서는 불가능했던 사회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호에게 가정의 화기를 보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즉 상호와 태희의 결혼은 이 두 가지 이익이 교환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 계약으로, 결혼에 합의하는 순간 두 사람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²⁹⁾

28) 『윤리학』 제9장 가족윤리(혼인), 490-491면.

29) 그러나 『홍도화』에서 자유의사에 기초한 합의는 실제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상호는 태희와의 직접적 합의 없이 독단으로 혼사를 추진하며, 태희는 부모의 뜻에

『홍도화』는 개인의 행동을 의무와 권리의 지평에서 규정하고, ‘사회’ 내에서 개인이 맺을 수 있는 이상적인 관계 안에서 사익과 공익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킨다는 ‘윤리학적’ 비전을 계약으로서의 결혼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³⁰⁾ 이러한 맥락에서, 『홍도화』에 나타난 결혼은 우수한 국민 양성을 목표로 교육 받은 젊은 남녀를 결합시킨다는 자유결혼 담론의 자장 안에만 위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³¹⁾ 즉 이 모티프는 “사회적 계약의 비유로서의 결혼”³²⁾이라는 의미에서 근대 사회 속에 처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이치에 맞는’ 관계의 형태를 제시한 ‘윤리학적’ 모델로 간주할 수 있다.

『홍도화』에 그려진 이상에 비하여, 『화(花)의 혈(血)』(『매일신보』, 1911.4.6.~6.21.)에 그려진 결혼은 의무와 권리를 통해 형성되는 근대적 사회관계의 본성을 훨씬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해 볼 만하다. 『화의 혈』의 서사는 빼어난 기생 선초의 이야기를 들은 이 시찰이 그녀의 거절에도 아랑곳 않고 동침을 요구함으로써 전개된다. 이때 아버지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위협한 이 시찰의 요구를 선초가 결국 받

따라 상호에게 재가한다. 상호와 태희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텍스트에 의해 전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호감을 서로 확인하고 결혼에 대하여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계기는 없었다.

- 30) 공익은 『윤리학』이 제시한 사회윤리의 가장 중심적 가치다. 사람의 의무는 공익을 꾀하는 것인데, 이때 개인의 이해와 사회의 이해는 조금도 범위가 다르지 않아 자연스럽게 일치할 수 있다고 기술된다. - 『윤리학』 제10장 사회윤리; 제11장 사회윤리(공익론), 492-494면.
- 31) 권보드래는 1900-1910년대 자유결혼 담론의 근저에 우생학적 발상이 있다고 분석하고, 이와 같은 담론이 신소설에 그려진 다수의 결혼 형태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인 바 있다. - 권보드래(2014), 『신소설, 언어와 정치』, 소명, 38-39면.
- 32) 프랑코 모레티(2005), 『세상의 이치』, 성은애 역, 문학동네, 56면. 프랑코 모레티는 근대 유럽의 교양소설에 나타난 결혼이 두 개인 간의 계약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해있는 모든 사회적 관계들을 ‘요약’할 수 있는 비유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았다.

아들이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가) 선초가 관비를 디허야 이쳐림말허기는 **리시찰의신의를** 암만
히도 알슈업슨즉 주그몸을 경선히 허락허얏다가 첫지는 주그부친을
빅방홀논지도 꼭 알슈업고 돌지는 주그를 일시식정으로 그리허얏다
가 나중에는 엇더케 팔시를 허논지 알길이 업셔々 다심흠을 도라 보
지안이허고 지지지삼 **신용업논자에게 어음다지듯허것이라**³³⁾

(나) 공스로 엇의를간다허닛가 스세부득이 전송을허며 **약도훈일
을 다시 데출허야 단々히뒤를 다져노려고** 당장 말을허려허논디 리
시찰이 무엇을 니켓다 씨다른모양으로

(리)아츠, 함아허더면 그디로 갈번허얏군 이이 **그약중셔**를 이리
쓰내오너라

(션)그것은 웨 쓰내오라고 허셔요

(리)**약중셔를 안이허옛스면모르거니와 괴왕훈이상에 도장을쳐야
확실증거가될터인디** 맛춤 도장을 안이넛코왔구나 그것을 내가々지
고가셔 도장을쳐서 곳내보내주마³⁴⁾

『화의 혈』에서 선초는 이 시찰과의 동침이 아버지의 안전과 자신을 교환하는 계약으로 성립하며, 그것은 상호 신용과 증서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을 자각하고 있다. 『홍도화』에서 정념(부부애)과 공익이라는 두 항(項)이 개입하여 상호와 태희의 계약을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윤리학적’ 관계로 형상화했던 것에 비하면, 『화의 혈』에서는 이와 같은 ‘윤리학적’ 이상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신 선초와 이 시찰의 결합은 ‘신용 없는 자에게 어음 다지듯’이라는 상거래의 비유가 적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근대적 사회관계 일반의 본성을 추찰하게

33) 이해조(1912), 『화의혈』, 보급서관, 81-82면.

34) 위의 책, 108-109면.

해준다. 긍정적 정념, 공익 지향이라는 ‘윤리학적’ 이상이 벗겨진 이 결혼의 본질은 ‘도장을 친 계약서’를 구비한 의무-권리의 공인(公認)을 요구하는 관계의 법적 성격에 있다. 이는 『매일신보』 연재본과 보급서관 1912년 판본에서는 “약도”, “약증서”라고 표기되어 있던 부분이 이후 오거서포 1918년 재판본에서 “계약”, “계약서”라고 바뀌는 양상을 통해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시찰과 선초의 관계가 가지는 법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명확하게 표현된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³⁵⁾

『홍도화』와 『화의혈』에 대표적으로 나타난 결혼 모티프를 그것을 포함한 근대적 사회관계 일반에 대한 제유(提喻)로 독해할 수 있다고 할 때, 이 두 서사는 이를 계약과 그것이 창출하는 상호의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려 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지평에 놓여 있다. 그러나 『홍도화』와 『화의혈』 사이에 놓인 약 3년 사이에 ‘윤리학적’ 이상의 내용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보다 주의를 요한다. 이는 1910년을 경험함으로써 대한제국-식민지 지식인 일반에게 일어난 사상적 굴절 혹은 좌절로 거칠게 요약할 수도 있겠으나, 이 지점에서 이해조가 공익 실현이나 국가에 대한 봉사과 같은 ‘내용’에 대한 추구에 비해 계약이라는 관계 ‘형태’ 자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을 함께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5) 사세부득이 전송을 하며 **계약**혼일을 다시 제출해야 단々히뒤을 다져노려고 (중략) 이이 **그계약서**를 이리 쓰내오너라 - 이해조(1918), 『화의혈』, 오거서포, 56면. 강조는 인용자.

3. ‘윤리적 계약’과 사회도덕으로서의 신의

계약 관계에 놓인 두 개인은 계약이 규정한 바에 따라 상호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된다. 예컨대 『홍도화』에 그려졌던 부부애처럼 특수한 관계 형태에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정념을 동반한 ‘뜨거운’ 계약에 대해서도, 『화의 혈』에 그려졌던 것처럼 ‘차가운’ 상거래에 가까운 계약에 대해서도 일단 계약인 이상 그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이치’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상화 방식을 고려할 때, 이해조가 그린 계약적 관계들에서 개인의 합리적 의사 결정과 합의의 소산으로 성립한 법적·추상적 관계로서의 계약(contract)이라는 범주를 초과하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륜리는 악한 일을 싱기기 전에 미리 막기로 위주하고 법률은 악한 일이 임의 불표된 뒤에 비로소 제치려야 사회의 죄악을 제하기로 위주하느니라”³⁶⁾라는 언급에서 잘 드러나듯, 이해조의 ‘윤리학적’ 문제의식은 계약이라는 새로운 관계 형태에 놓여 있는 두 개인 사이에 적용될 수 있는 도덕(감정)의 성격과 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³⁷⁾

「윤리학」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개인들이 모두 자발적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함을 전제한 후,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가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36) 「륜리학」, 502면.

37) 도덕감정은 도덕을 내재화하여 구체적인 현실에서 적용하는 행위자의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도덕감정은 타자를 지향하여 그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에서 발현되어 개인들을 공동체와 결속시키는 사회연대의 기능을 수행한다. 긍정적 도덕감정의 범주에 동정, 공감, 감사, 신의 등이, 부정적 도덕감정의 범주에 부끄러움, 죄의식, 모멸, 경멸 등이 속한다. - 김왕배(2013), 「도덕감정: 부채의식과 감사, 죄책감의 연대」, 『사회와 이론』 23, 한국이론사회학회, 140-141면.

(가) 문 사람의 정신도 타인과 협력하여야 하느니라

답 사람의 정신은 본리 독립이니 스상의 디경에도 또한 불가불 외로히 섰는 형세를 일울지나 그러나 실제에 베풀면 기인의 힘이 심히 박약하리라 불가불 서로 련합하여야 비로소 큰 업을 일울지니 즉 정치상의 운동과 교육의 스업과 실업의 진보가 언의 것이 공동 스업이 안인 것이 업나니 임의 동지자라 일컷고 한 가지 일을 함께 하다가 일초의 스상을 변하여 이론을 창출하고 갖은 당에 버셔져 나아가 거연히 언약을 위비하면 이는 일은바 신의를 가뉘얹게 쓰이니 신의를 가뉘얹게 쓰면 비단 한 사람의 목덕에만 방히되는 것이 안이라 실로 공익의 희로움이 더욱 심하니 그럼으로 처세하는 자 | 차라히 처업에 삼글지언뎡 나중예 뉘우침이 잇슴이 가하니라³⁸⁾

(나) 신의를 무겁게 하여 마암과 뜻의 변경하는 바를 힘써 제어하되 말을 너고 보면 엇더하 곽절이 잇던지 반답이 그 말을 발부며 혼 약조를 세우면 엇더하 간고가 잇던지 반답이 그 약조를 발분 후에 밧그로 샐회의 질서가 문란치 안이하고 안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늑하질지니 가히 주의치 안이홀 바리오³⁹⁾

(가)와 (나)는 ‘사회윤리’의 요체에 대해 다루고 있는 『윤리학』 제11장 사회윤리(공익론)과 제12장 사회윤리(예의론)의 뒷부분이다. 특히 이 두 장을 저본과 비교했을 때 특이한 점은 『원량씨윤리서』에는 제13장 사회윤리의 4절로 독립되어 있던 ‘신의론(神義論)’의 내용이 분절·축약되어 11장과 12장의 뒷부분에 첨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신의(信義)’는 공동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필요한 윤리(가)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나)을 포함한 개념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원량씨윤리서』의 ‘신의론’을 함께 살펴보면 이 맥락에서 사용된 ‘신의’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38) 『윤리학』, 494-495면.

39) 『윤리학』, 496면.

『원량씨윤리서』의 제13장 4절 신의론은 ‘신의의 의미(信義の意味)’, ‘신의의 필요(信義の必要)’, ‘경제사회의 덕의(經濟社會の德義)’, ‘사회의 격변과 신의(社會の激變と信義)’라는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원량씨윤리서』는 ‘신의(信義)’가 ‘속이지 않는다’는 의미의 ‘신(信)’과 ‘말한 것을 반드시 행한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의미의 ‘의(義)’가 서로 상합(相合)한 ‘사회도덕’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⁴⁰⁾ 신의는 가족, 친구, 국민 일반, 외국인 등 사회적 교제에 요구되는 사회도덕으로서, 그 요체는 사람의 마음이 비록 상황에 따라 변하더라도 신의를 무겁게 여겨 자기 마음의 변화, 사욕(私慾)을 통제하는 데 있다.⁴¹⁾ 『원량씨윤리서』는 신의가 경제사회에 요구되는 상도덕이라는 점을 보다 강조하고 있으나⁴²⁾, 전반적으로 신의는 상황의 변화에 의해 비록 불리해

40) 今普通の意味にて云ふ時は信とは偽なきの義にして云ふ處は必ず之を行ひ、約したる事は必ず之を守るを云ふ。されども、社會道德として之を見る時は、單に言行一致し、約束に違はざるを以て足れりとすべからず。必ずや、其の行ふ所並びに其の約する所、義に適せざる可らず。是れ信と義と相合して、社會道德をなす所以なり。- 元良勇次郎(1902), 『元良氏倫理書: 中等教育』上, 成美堂, 676면.

41) 是に於てか、各人信義を重んじ、己れの心の變更を制し、一度言ひたることは必ず行ひ、一度約したる事は必ず守るの必要生ずるなり。而して信義を實行せんには、一方に於ては國法上各人の權利義務を考へ、他方に於ては道德上、或は親子、或は親族朋友として、各々盡くすべき本務を察し、己れの私慾を制して、各々其の宜しきに適せざる可からず。- 위의 책, 77면.

42)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trust)’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개인의 이기심에 의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이를 합법화하는 기제로서의 계약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공동체적 결속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근대 사회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주체들은 합리적·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공통의 도덕률에 따라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질서의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프랜시스 후쿠야마(1996), 『트러스트』, 구승희 역, 한국경제신문사, 50-51면). ‘신의론’에서 논하는 신의는 근대 경제사회에서 계약적 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의 가변적 욕망을 통제함으로써 사회 질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윤리로 상정되었다는 점에서 프랜시스가 말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개념과 유사한 의미망을 가진다. 이해조의 『만월대』는 류 첨지가 경제주체로서 활동하는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류 첨지를 중심으로 둔 인간관계를 통해 이와 같은

진다 하더라도 사욕을 좇아 마음대로 약속을 파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사회도덕이다.⁴³⁾ 계약(적) 관계가 근대 사회에 일반적인 관계 형태일 때, 상황의 변화와 순간의 이익에 따라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 질서의 혼란으로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원량씨윤리서』에 언급된 신의의 개념과 근접한 것은 (나)의 대목에 기술된 신의이며, 이마저도 매우 소략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량씨윤리서』가 기술한 ‘상황이 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자신이 말한/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회도덕으로서의 신의는 이해조 신소설에서 비교적 선명하게 형상화되고 있어 주의 를 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의 혈』과 함께 『화세계』(『매일신보』, 1910.10.12.~1911.1.17.)를 살펴볼 수 있다. 『화세계』는 『화의 혈』과 마찬가지로 거의 강제적으로 맺어진 ‘혼약’⁴⁴⁾ 관계에 대하여 ‘정절’을 지키려는 여성 인물을 중심에 둔 구성을 택하고 있다. 『화세계』는 대구 진위대에 출주하여 있던 구 정위(구 참령)가 퇴리 김홍일의 딸 수정의 소문을 듣고 거의 우격다짐으로 통혼함으로써 시작된다. 또한 『화의 혈』과 마찬가지로, 『화세계』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이 성사된 후 남성 인물이 지위를 잃고 추락하거나 혹은 도망침으로써 여성 인물이 이를 파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에 서는 것이 서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여기서 혼약은 물론 『홍도화』에 그려졌던 것과 같은 긍정적 정념을 결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당사자의 의사조차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여성 인물들은 일단 혼약이 성립하자

상도덕으로서의 ‘신의’를 잘 드러내고 있다.

43) 何となればが、る事は、事會の常道にあらずして、一時の變態に過ぎざるが故に、早晩社會の正道たる信義のために壓制せらるべければなり。- 元良勇次郎, 앞의 책, 80면.

44) 이 절에서는 ‘신의’라는 도덕(감정)을 동반하는 계약으로서 ‘언약’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혼약(婚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한다.

이를 지켜야 한다는 비이성적인 의무감을 느끼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여성 인물들은 궤절이라 할 만한 기로에 서게 되자 한 번 정해진 혼약 상대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지키는 것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려 한다.

(가) (책) 더즈식이 약고 쪽쪽 혼줄알았더니 지금보닛가 아즉용렬
 흥구나 령감은 란장마즐 무슨령감이고 알아보기는 무엇을알아보아
 아버의말이 쪽올흐니 가당치안케 싱각을 말고 진작 니저바려라 한
 일밀워 열일을아는법인즉 두고 불것업시 네게도 결다코 못홀노릇
 홀위인이니라

(선) 에그 아버지 그러케 혼실말숨이 안이올시다 그가엇더 혼 즈겨
 이던지 괴왕한번 몸을허락 혼얏스온즉 제가 죽어도 리씨딕사람이온
 딕 **엇지 달면습키고 쓰면빅아타 금슈의힝위를 혼단** 말숨이오닛가⁴⁵⁾

(나) (박) 너의 아버지의 엿주어 도흔흔쳐 한곳을 듯보시라고히셔
 하로밧비 너를 식집을 보내야 내가 지금죽어도 눈을감겐다

슈정이가 아모디답업시 접친 듯이 안젧다가 두눈에서 눈물이 비
 쏘다지듯 혼며 고기를 푹 숙으리고

(슈) 에그 어머니 나는 이 자리에서 죽어요 **사름이 기즘싱 안인바
 에 그일은 힝홀수는 업셔요**⁴⁶⁾

위의 대목에서 보이듯 선초와 수정은 혼약을 파기하라는 부모의 뜻에 대하여 그것은 ‘금수’나 ‘개집승’의 행위이므로 인간으로서 그리 할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 이러한 대목을 선초가 춘향의 일부종사 정신을 본받으며 절행(節行)할 의지를 밝혔던 장면 등과 함께 읽을 경우⁴⁷⁾,

45) 이해조(1912), 『화의혈』, 보급서관, 115-116면.

46) 이해조(1911), 『화세계』, 동양서원, 20면.

47) 나도사름인디 부모의혈육을 타고나서 엿지타이긋치 천흔구녕이에 몸이썬려졌노
 그는 이곳풍속이 괴악히셔 즈식나셔 기싱에박는것을 전례로 녀이논터이니 부모의

선초와 수정은 단순히 ‘정절’이라는 전근대적 도덕을 지키려는 구시대적 인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행동이 낡고 비합리적인 것임은 같은 텍스트 내에서도 다른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분명히 지적되었던 바 있다. 예컨대 구 참령은 수정이 끝내 자신을 찾아오자 다음과 같이 한탄한다.

(구) 너가 이런말을하면 엇지싱각호실는지는 알수업지오마는 **지 금세월은 이전완고시대와 달나** 성례식지호야 너외동거를하다가도 피츠 뜻에맞지못호는일이 잇스면 소관관청예 허가를엇어 리혼호는 일도 업지안아잇는디 더구나 우리야 다만 주단왕릭만호얏슬뿐이지 무슨김흔관계야잇소 (중략) 허-너가 괴악호눔이로다 빅주에 남의 집규수와 억지혼인을 명히놋코 이세식지 모로는데호야 더광경이 되도록호얏스니 나의 잘못호말은 더호말업거니와 **누가 지난날결연 약을 굿이 직히어 식집안이가고 잇슬줄이야 솜에나 뜻을호얏나**⁴⁸⁾

혼약의 당사자인 구 참령조차 수정의 행동을 ‘이전 완고시대’에나 할 만한 것으로 치부하고, 수정이 단순한 ‘지난 날 언약’에 얽매어 있는 것을 ‘편성 여자’의 문제로 간주하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해조는 수절(守節)이 이미 낡은 시대의 도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근대적 교육을 받지 못한 구시대적 여성 인물인 선초와 수정은 혼약 당사자에 의해서도 혼약에 충실하려는 태도를 경시당하며, 수정이 그나마 구 참령과 맺어질 수 있었던 것에 반하여 기생

원망호것도업고 내가 한눈한팔 병신으로 싱기지못호것만 절통호지 그러나 털중에도 칭々이라고 아모리 기싱이라도 제형실 더가질맞이지 기싱이라고 다 기증싱의 형실을호가 광뎨타령의말맞다나 옛날춘향이는 남원기싱으로 헛탄히몸을 버리지안이 호고 년괴와 직질이 덕당호 리도령을맞나 일부중수를 호얏슴으로그 아람다운일홀이 몇씩년을 썩지안이호얏는디 나역시 팔스즈가 괴박호야 천호몸은 비록 되었스나 절형이야 남만호것이나 - 이해조, 『화의혈』, 『매일신보』 2·3회, 1911.4.8.-4.9.

48) 이해조(1911), 『화세계』, 동양서원, 95-97면.

선초는 끝내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러나 『윤리학』의 문제의식과 연관 지어 볼 때, 실제로 두 텍스트의 중심에 있는 것은 정절이라는 낡은 도덕이 아니라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근대 사회 도덕으로 역설되었던 신의라고 할 수 있다. 신의는 약속을 지킨다는 수행성으로부터 성취되는 것으로서, 약속을 지키는 행동 자체를 통해 개인의 마음을 ‘정도(正道)’에 위치시키고 이로써 질서를 담보하려는 윤리이기 때문이다. 즉 수정과 선초의 서사를 통해 형상화된 것은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환경의 변화에 굴하지 않고 인간이 자신의 말의 주체로서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사회도덕으로서의 신의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는 주체로 하여금 ‘짐승’과는 다른 지점에 서게끔 하는 ‘인륜’의 일환으로 나타난다.⁴⁹⁾ 즉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동을 통어함으로써 그녀들은 ‘약속을 지키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텍스트가 지닌 여러 한계와 모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언약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려는 두 여성 주인공의 태도가 서사 전체를 견인하는 동력원이 되어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음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약속을 지킨다는 관계의 윤리로 신의를 파악하는 경향은 『윤리학』의 발표 이전인 『빈상설』에서도 이미 엿보였던 바 있다. 다만 이 텍스트에서 신의를 지키는 것은 남성인 승학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약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뜻에 따라 신의를 지키려는 의지와 신의의 수행에 동반되는 고난이 크게 부각되었던 『화세계』, 『화의 혈』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이해조 소설의 여성인물에게 신의가 주로 절(節)이라는 전근대적 도덕질서의 수용과 착종되어 나타나는 데 비하여, 『빈상설』의 경우에는 신의를 남성인물을 통해 제기함으로써 이것이 인간성의 문제와 결부된 문제임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49) 위의 책, 56면.

옥희가그동안 시집을갓나 그뒤로잇나 **일지닐길에 약조흔일을**
 밋잘것은업지마는 제가늬게향하야 혼는거동이 진정은진정이던걸
 만일그씩약조를 굿게직혀 우리부친 히비히신 소문을듯고 나오기
 를 눈이감도록 기더리면 **모로논체하고 이압호로 지너가기가 인경**
이안이

하고교군을 닉려노코 쉬이는동안에 옥희의집을 차자가니이논식
 계에 침혹하야 연연불망흠이안이라 **디장부신의를 아녀자에게 일치**
안이하자는 작명이더라⁵⁰⁾

『빈상설』을 함께 놓고 볼 때, 신의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라는 점이 다시 한 번 선명하게 드러난다. 약속의 내용은 선악의 이분
 법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인물의 입장에 따라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해석될 수 있는 중립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때 약속은 등장인물들에게조
 차 일시의 일일 뿐이므로 무시해도 될 만한 일로 그려진다. 다시 말하여
 약속을 지키는 것은 수절(守節)의 경우에 보이듯 기존의 도덕질서에 대
 해 순응하거나 이를 거부한다는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대신 신의를 지키는 문제는 약속의 주체로서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한다는 의지의 문제이자 ‘인정(人情)’을 가늠케 하는 인간성의 문제
 로 나타난다.⁵¹⁾ 또한 자신이 따라야 할 질서를 스스로 창출하고 이에 따

50) 이해조(1911), 『빈상설』, 동양서원, 151면.

51) 유봉희는 이해조가 번역한 「윤리학」을 모토라의 저본과 비교하는 한편 서구 사회
 진화론과 동아시아 전통사상의 습합(習合)이라는 견지에서 살펴보고, 번역 텍스트
 로서 「윤리학」이 가지는 독창성 중 하나를 인간 본성으로서의 도덕성의 발견에서
 찾았다(유봉희(2013), 「『윤리학(倫理學)』을 통해 본 동아시아 전통사상과 이해조
 의 사회진화론 수용」, 『현대소설연구』 52, 한국현대소설학회, 369-370면). 그러나
 「윤리학」의 몇몇 전제들은 서구의 고전적 사회계약론 사상과의 연관성을 더 강하
 게 드러낸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사회를 개인의 집합으로 규정하고, 국가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 인위적 기관으로 기술한 부분 등은
 명백히 사회계약론 사상, 특히 루소와의 근접성을 드러낸다. 루소는 인간의 ‘사회
 적 본성’으로서 연민과 동정을 발견하고 이로부터 공익을 추구하는 ‘일반의지’의

라 자신을 통제한다는 ‘신의’의 원리가 근대적 주체성의 구성이라는 문제와 닿아 있다는 점도 아울러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인간 본성을 윤리적 층위에서 파악하려는 지향성, 그리고 이를 기층케 하는 척도로서의 ‘인륜’의 인식과 형상화라는 문제의식은 이해조 소설들과 『윤리학』을 잇는 연결점들을 드러내준다.

4. 결론

본 논문은 1910년이라는 커다란 단절을 전후한 이해조의 신소설에서 어떤 ‘퇴보’를 암시하는 표면의 밑에 ‘윤리학적’ 문제의식이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보려 했다. 이해조는 “도리라 흐는 것은 사회의 길이니 사회 발달을 따라 함께 변천”⁵²⁾한다는 전제 위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자기 시대와 사회에 적합한 ‘도리’를 상상하고 제시하는 데 힘을 기울였던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학적’ 문제의식의 궤적을 추적해 보면, 이것이 『윤리학』의 번역으로부터 자극받아 싹튼 것이라고만 보기 힘든 지점들이 발견된다. 오히려 이해조가 초창기부터 가지고 있던 ‘윤리학적’ 문제의식이 『윤리학』의 번역을 통해 이론적 언어로 정련될 계기를 획득했다고 간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주체 외부에 존재하는 윤리 규범에 대한 인식이자 동시에 실천으로서

정당성을 도출하였다. 루소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으로부터 연역된 ‘사회도덕’이 “인민에게 국가 설립의 정신을 유지하게 하고”, “국가의 진정한 구조”(장 자크 루소(2015), 『사회계약론』, 김중현 역, 펍컨클래식코리아, 69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자기이익의 보장을 위한 인위적 계약에 의해 국가가 성립된다고 본 것은 서구 사회계약론 사상에 공통된 전제이지만, 연민과 동정이라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으로부터 ‘일반의지’를 도출한 것은 루소 사상의 특징이다(조공호·강정인, 앞의 책, 309면). 이는 『윤리학』에서 발견되는 논리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52) 『윤리학』, 489면.

『윤리학』을 이해할 때, 이해조의 소설들은 이 인식을 구성하고 포착하는 수단이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도리’, ‘이치’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자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인간성의 기준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 기준이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준을 ‘발명’해내야 한다는 데 있었다. 이해조가 소설을 통해 사회의 변화가 창출해낸 낯선 관계 형태를 포착하고 이에 적용가능한 윤리를 모색하려 했던 몇몇 시도는 이러한 ‘윤리학적’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윤리학』은 개인을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측면에서 규정하고, 사회 내 개인들이 맺을 수 있는 관계를 의무와 권리를 동반한 계약 관계로 묘사했다. 이와 같은 묘사는 계약 당사자로서 동등한 위치에 놓인 개인, 자유의지와 행동의 주체로서의 개인이라는 ‘근대적’ 주체의 이미지를 창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조가 사용한 계약으로서의 결혼이라는 관계는 사실 그것을 포함한 근대적 사회관계 일반에 대한 제유로 바라볼 필요성을 가진다. 『홍도화』에서 드러나듯 이러한 계약적 관계는 긍정적 정념과 사회적 이상을 동반한 ‘뜨거운’ 관계일 수도 있으나, 『화의혈』에서 알 수 있듯 그것의 본질은 의무와 권리로써 사회에 처한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차가운’ 관계라는 데에서 드러난다.

계약이라는 낯선 관계의 인식과 형상화에 있어 이해조는 이 관계에 처한 두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윤리의 탐색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이해조는 ‘신의’라는 도덕(감정)을 동반한 것으로 계약적 관계를 그림으로써 이를 단순한 법적 관계에서 윤리적 관계로 상승시켰다. 그가 탐구한 ‘신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입장이 불리해지더라도 약속을 준수한다는 사회도덕으로서, 선악의 이분법의 바깥에서 주체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질서로 나타난다. ‘신의’의 본질은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약속의 주체로서 그것을 지킨다는 수행성 자체에서 찾아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자 료】

이해조(1918), 『화의혈』, 오거서포.
_____(1912), 『화의혈』, 보급서관.
_____(1912), 『홍도화』, 동양서원.
_____(1911), 『화세계』, 동양서원.
_____(1911), 『빈상설』, 동양서원.
『매일신보』

元良勇次郎(1902), 『元良氏倫理書: 中等教育』上, 成美堂.

【국내 논저】

구장률(2012), 「식민지 문화전략과 복고의 식민성-이해조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49,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권보드래(2014), 『신소설, 언어와 정치』, 소명.
권영민(1978), 「이해조의 소설관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복순(2014), 「『제국신문』 학문문의 실학적 변용과 학지(學知)의 타자성」, 『여성문학연구』 31, 한국여성문학학회.
김왕배(2013), 「도덕감정: 부채의식과 감사, 죄책감의 연대」, 『사회와 이론』 23, 한국이론사회학회.
김현주(2013), 『사회의 발견: 식민지기 ‘사회’에 대한 이론과 상상, 그리고 실천』, 소명.
배정상(2015), 『이해조 문학 연구』, 소명.
송민호(2012), 「동농 이해조 문학 연구: 전대(前代) 소설 전통의 계승과 신소설 창작의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2011), 「이해조의 근대적인 교육관과 초기 소설의 윤리학적 사상화의 배경」, 『한국현대문학연구』 33, 한국현대문학회.
유봉희(2013), 「『윤리학(倫理學)』을 통해 본 동아시아 전통사상과 이해조의 사

- 회진화론 수용』, 『현대소설연구』 52, 한국현대소설학회.
이영아(2007), 『1910년대 『매일신보』 연재소설의 대중성 획득 과정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23, 한국현대문학회.
이재선(2000), 『한국소설사 - 근·현대편 1』, 민음사.
이희정(2004),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해조 신소설의 근대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22, 한국현대소설학회.
임화(2009), 『문학사 - 임화 문학예술전집 2』, 임규찬 편, 소명.
조궁호·강정인(2012), 『사회계약론 연구』, 서강대학교 출판부.
최원식(1986),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한기형(1999),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

【국외 논저】

- 벤 싱어(2009),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이위정 역, 문학동네.
사쿠타 케이이치(2013), 『한 단어 사전, 개인』, 김석근 역, 푸른역사.
장 자크 루소(2015), 『사회계약론』, 김중현 역, 펍클클래식코리아.
프랑코 모레티(2005), 『세상의 이치』, 성은애 역, 문학동네.
프랜시스 후쿠야마(1996), 『트러스트』, 구승희 역, 한국경제신문사.

원고 접수일: 2015년 12월 29일
심사 완료일: 2016년 1월 27일
게재 확정일: 2016년 4월 27일

ABSTRACT

A Study on ‘Trust(信義)’ depicted in
Lee Haejo’s *Sinsoseol*

Lee, Kyungrim*

Lee Haejo has been well recognized as a writer devoted to *Sinsoseol* along with Lee Injik and Choi Chansik. Recently, several studies have developed a remarkable research on his translation *Yullihak*,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major reference to understand his early thoughts and intentions to write *Sinsoseol*. This text can be expected to make a shift in existing interpretation paradigm which regards Lee Haejo’s works as accepters of premodern ethics orientations.

The most interesting point in this text is that it explains Ethics as recognition and practice at the same time. The purpose of Ethics as a modern academic discipline is regarded as to recognize the standards which divide good from evil, which make human a human. One of Lee Haejo’s major themes is to capture this standards in his works and present it to his readers. However, *Yullihak* requires not just to recognize the pre-existing standards but to understand that these standards can be changed as society changes rapidly. Consequently, to create new standards which can be fitted

* Lecturer, Department of Liberal Arts and Science, Hongik University

to the changed society rises as a major project.

Yullihak defines that society is a collective of individuals. And it recognizes various social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as a contract. The concept of contract creates an image of subject who can be regarded as equal to the others, who have a free will to agree to the contract. This kind of subject appears beyond the pre-modern social or moral system. They can be regulated by their own contracts, not by premodern ethical regimes. Lee Haejo tried to plant this idea into marriage which can be represented as a synecdoche of other social relations. He has depicted an ideal contract in *Hongdohwa*, and also revealed its crucial nature in *HwaoeiHyul*. If a contract cannot achieve its ideal form, it can only be depicted as a legal contract.

However, Lee Haejo tended to carry contracts beyond its own legal nature. His concern was to impose a moral nuance on these relations. He crystallized it as a Trust. In this context, trust is social morality required among the society. It requires to suppress selfishness when circumstances around the contract change, and to keep their promises as they made. From this perspective, we can reconsider some behaviors of female characters in Lee Haejo's works. Because trust can be achieved by actual performance of keeping promises, the contents of promise can be regarded as minor factors. Female characters who kept trust can achieve their human quality by their own.